

“국기원 무주태권도원으로 이전하라”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국가 균형 발전·세계태권도인 대표적 성지 발돋움 위해” 촉구

채택된 건의문 16개 기관 전달키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회의회장)가 무주 태권도 성지화사업 성공을 위해 서울 국기원의 무주 이전이 시급하며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18차 월례회의에서 ‘국기원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무주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인의 대표적 성지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이전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당초 무주태권도원에 국기원의 모든 기능을 이전시켜 무주가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성지화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국기원이 무주태권도원 이전 대신에 490억원의 예산으로 자체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과 상징성에도 중대한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국기원의 독립적인 성지화 추진에 대해 “국기원은 태권도 본산의 상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박물관 형태로 유지 보전되면 충분하다”며 “무주 태권도원에 모든 기능과 역량을 집결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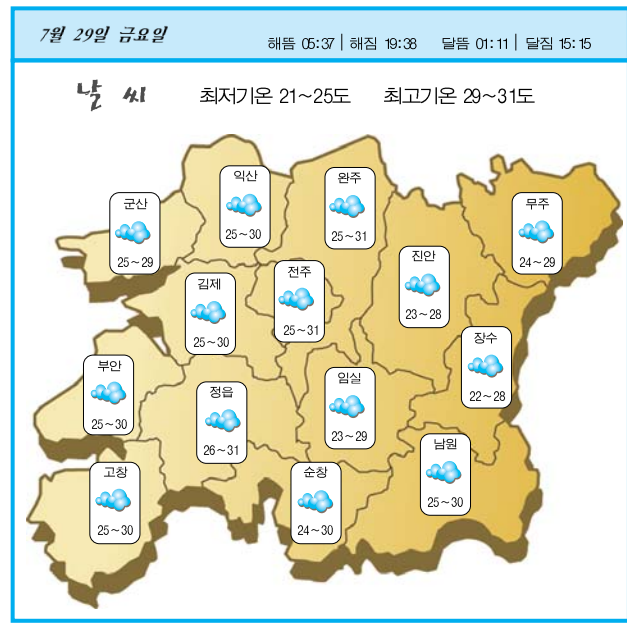
이어 협의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무주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국기원의 완전한 이전이 선

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국기원의 무주이전만이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추진과 태권도인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무주태권도원 성지사업에는 총 16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한태권도협회장 등 모두 16개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네팔 신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 수립

지역별 맞춤형 발전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 수립 본격적 개도국 지원 나설 예정

현지 15개 지역 대상 실시

전북대학교가 네팔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소개발지원센터(소장 김종일)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네팔 국립연구소인 네팔과학기술아카데미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네팔 생태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단은 네팔 연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자료를 제공했고, 지난해 8월에는 네팔 연구진을 국내로 초청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사업교류 후 올해 1월부터 네팔의 에너지 소비 패턴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조사를 비롯하여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전북대는 네팔의 지역별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개도국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일 센터장은 “1년여 동안 네팔의 부족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노총 전북본부 대의원 대회

한국노총 전북본부 제56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28일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도지사와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조사와 현지 기술 전수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

결과를 기반으로 네팔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대 레슬링부, 제42회 대통령기 3개 체급 우승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우승 3명, 준우승 2명, 3위 2명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자유형 61kg급에 출전한 김슬기(운동처방학과 4년), 그레코로만형 68kg급에 출전한 이하늘(운동처방학과 3학년), 그레코로만형 130kg급에 출전한 조영민(운동처방학과 3학년)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그레코로만형 71kg급에 출전한 장하늘(운동처방학과 1학년), 그레코로만형 98kg급에 출전한 김완세(운

동처방학과 3학년)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레코로만형 78kg급에 출전한 정주은(운동처방학과 1학년), 그레코로만형 80kg급에 출전한 최윤호(운동처방학과 3학년)학생도 3위를 차지했다. 전주대학교 레슬링부는 출전 선수 9명중 7명이 수상하는 결과를 내 위상을 높였다.

전주대 레슬링부 박진규 감독은 “힘든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이 얻은 귀한 결실”이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사드 홍보 학교 동원, 교육부 제정신 차려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최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안전 교육 지시’ 공문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앞서 24일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국방부가 제작한 ‘사드 바로 알기’ 홍보 자료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드 강행을 위해 정부는 아예 노골적인 방식으로 학교 동원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수단화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로서 국제 교육규범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드 홍보 교육은 교과서라는 껍데기조차 없이 국방부 홍보물을 그대로 교육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충격을 준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하에 단 하나의 판단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문을 여러방향을 시기에 발송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없는 빈 교실에서 사드 찬성 교육을 하라는 황당한 공문 발송으로 박근혜 정권의 침착을 받음은 모르나, 반항 중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괴망 충성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